



사회가 무너지는 6가지 징조(六錯)



박재희
인문경영원 대표

- 성균관대 철학박사
- (전)포스코 석좌교수
- (전)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 국격은 그 나라에 사는 국민의 품격이다. 품격이 높은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격은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OECD 몇 위'라며 나라의 경제력을 자랑해 보아야 천민자본주의 구태가 만연하다면 국격은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품격과 인격이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그 나라의 국격이 높아진다. 물질적 탐욕에 물들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 진실과 정직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 불의를 보면 국민이 들고일어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세, 양보와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곧 그 나라 국격의 수준이다. 아무리 언론과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하는 국민이

있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설 자리는 없다.

나라가 망하고 쇠퇴하기 전에는 국격이 떨어지는 전조 증상이 있다.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고, 나라 역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국격이 떨어지는 전조 증상이 있다. 청나라 말기 김영(金纓)이 편찬한 <격언연벽(格言聯璧)>에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어지는 6가지 착각(錯覺) 전조 증상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일명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어지는 여섯 가지 착란(錯亂) 현상, 육착(六錯)이다.

첫째, 사이위복(奢以爲福). 사치(奢)를 행복(福)이라고 착각하는 풍조다. 고급 차와 비싼 시계,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을 SNS 여기저기 올리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나라는 망할 징조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물질은 소중한 삶의 기반이지만 과도한 사치는 허영의 산물이다. 천민자본주의는 성과를 숭상하고, 성과는 사치로 이어진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성과가 사회의 나눔으로 승화되는 나라다. 스포츠카를 몇 대씩 사서 주차장에 세워 놓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비싼 집과 별장을 자랑하며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부가 아무리 늘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둘째, 사이위지(詐以爲知). 남을 속이고 자기(詐) 치면서 자신의 머리(知)가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기획부동산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거나 근거 없는 금융투자로 유인하여 타인의 돈을 빼앗는 사회는 망조의 사회다. 빼앗긴 사람이 문제지 자신은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번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뻔뻔함이 상식이 된 사회는 더는 희망이 없다.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약하고 모자란 사람은 도태되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는 망조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셋째, 탐이위위(貪以爲爲), 탐욕(貪)은 인간의 본능이니 적극적으로 실천(爲)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풍조다. 탐욕과 생존의 본능은 구분되어야 한다. 통장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도 더 채우려고 눈에 불을 켜면 그 사회는 탐욕 사회다. 탐욕은 사회를 양극단으로 만들어 치열한 갈등을 불

러일으킨다. 건강한 부자는 존경받고, 부자보다 초연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인정되는 사회는 건강하다.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면 비천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겠다.' 공자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초연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한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필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겁이위수(怯以爲守). 겁(怯)쟁이가 신중하다고 생각하며 수동적인 자세를 지키며(守) 사는 착각이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고 변명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죽은 사회다. 지하철에서 위협받는 여인을 모두가 외면한 뉴욕의 지하철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에 안도한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질 줄 알고, 불의에 대항하는 사회정신이 살아 있는 사회가 품격 높은 사회다.

다섯째, 쟁이위기(爭以爲氣). 남과의 경쟁(競)과 싸움을 용기(氣)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내가 너보다 뭐가 모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을 이기려는 경쟁심은 결국 소모적인 사회 낭비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자존심의 경쟁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비난하며 목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들,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크기로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점령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진이위위(嗔以爲威). 화(嗔)내며 성내는 것을 위엄(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작은 일에 화를 내며 상대방을 겁박하거나, 싸우려 드는 것은, 위엄이 아니라 만용이다. 종일 화가 나는 구실만 찾으려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면 진노하며 비난하고, 조그만 일에도 얼굴이 붉어지면 화를 불같이 낸다면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섯 가지 착각에 익숙해져 있는 사회는 불행하다. 사치와 행복을 혼동하여 물신(物神)에 혼을 빼앗기며 사는 사회, 사기와 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 탐욕에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사회, 오로지 몸보신에만 익숙해 정의를 외면하고 눈을 감는 행위, 작은 일에 화내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활개 치는 사회, 쓸모없는 자존심에 목숨 걸고 경쟁하는 사회는 저물어가는 사회다. 선진국은 국가에 돈이 많거나, 국민의 물질적 풍요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격과 품격이 쌓아졌을 때 비로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KMIF*